



먼저 감사하라

광주 스테이크 부장
박 하 천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지만 안다는 것으로 승영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명이 무엇인가를 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과 직결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알고 있는 것들을 얼마나 실천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향해 열심히 뛰지 않으면 안됩니다.

모든 것을 생각하기에 앞서 먼저 감사할 줄 아는 정신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영생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마음이 정결케 되고, 겸손해야 하며, 사랑을 품어야 하며, 상대를 존경하고 신뢰하는 정신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실재를 확실히 알게 될 것이며, 창조 사업과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과 자신의 존재와의 관계를 재인식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어떠한 것인지 궁정적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말씀에 좇아 행하고자 노력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네가 밤에 주님과 함께 하면 잠 자고 있을 동안 주께서 너를 살피 주실 것이며, 아침에 일어나서

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너희 마음이 가득 차게 하라.”(열 37:37)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범사에 주 네 하나님께 감사하라.”(DC 59:7)고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천지 창조와 자신의 출생을 비롯한 모든 일은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드릴 만한 이유가 되는 것이며, 우리가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맺으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 주신 은혜에 대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드릴때 주님은 은혜에 은혜를 더하실 것이며, 우리는 풍요와 화평과 자유와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주어진 현실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을 행복으로 이끄는 열쇠입니다.

거기에 바로 합당성의 길이 있습니다. 똑같은 현실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해 할 것인가, 아니면 원망과 좌절로 괴로워 하고 실의에 빠져 스스로를 슬프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자신이 쥐고 있는 열쇠로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전 중의 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훈기에 찬 아름다운 규수가 무물가에서 물을 길고 있을 때, 마침 이곳을 지나던 선비가 몹시 목이 말라, 체면 불구하고 물 한 목음을 청합니다. 이

규수는 말없이 물 한 사발을 떠서 곱게 바치면서 어깨 위에 너울거리는 버들잎을 하나 따서 그 물위에 띄웁니다.

물사발을 받아 든 선비는 몹시 목이 말랐던 터이므로 급히 물을 마시고자 하였으나 물에 뜬 버들잎 때문에 물을 빨리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그 선비는 물과 버들잎의 사연을 따지기에 앞서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정결케 정립한 다음 물과 버들잎의 사연을 곱곰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얻기에 이르렀습니다.

“옛부터 이르기를 찬물에 채하면 약도 없다던데 이 낭자는 그것을 미리 알고 일부러 나로 하여금 물 마시는 일을 더디게 하려고 물에 버들잎을 띄워 주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 선비는 그 규수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그 선비와 규수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어 후일 많은 사람에게 칭송받는 훌륭한 가정을 이루었다 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도 흐뭇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만약에 이와 반대로 물사발을 받아 든 선비가 물에 뜬 버들잎을 보고서 감사하는 마음이나 겸손한 태도를 갖지 않고 물에 뜬 버들잎을 불결하다거나 다른 이유를 들어 규수를 책망했다면 그 결과는 들어 보지 않더라도 얼른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모든 것을 행할 때 그 뒤에는 반드시 기쁨과 행복이 따르나 감사하는 일을 먼저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파멸과 원망이 있을 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렇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는 자는 영화롭게 될 것이요, 이 세상의 것이 저에게 더하여지리니 참으로 백 배 이상

더하여지리라.”(DC 78 : 19)

사울은 전쟁으로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용맹과 지혜와 덕을 갖춘 다윗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리했던 전세를 완전히 유리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했음에도 나중에 사울은 그 다윗을 기뻐하지도, 사랑하지도,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니다. 오히려 저주하고 두려워하여 마침내 그를 해치려 하였습니다.

그결과 사울은 주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그의 심신을 스스로 괴롭히며, 비참한 최후를 마쳤던 것입니다. (삼상 17장~31장) 이 또한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달만을 추구하기 위한 그릇된 생각을 갖게 됨으로써 빚어진 엄청난 비극의 예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참 마음으로 감사드릴 때, 주님은 더욱 큰 사랑과 은혜를 주십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세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원망하느니 보다 은혜를 생각해야 하며, 책망하기 전에 감사해야 합니다. 참으로 구원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기도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하라(교서 46 : 7)는 주님의 말씀에 애써 귀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온세상에는 감사의 기도와 찬양의 외침이 드높고, 모든 가정에 행복에 찬 웃음소리가 가득 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말일에 복음을 회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늘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형제 자매들을 주님이 일일이 기억하여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힝클리 장로 대관장단 보좌로 부름받음



대관장단은 7월 22일 고든 비 힝클리 장로가 대관장단 보좌로 임명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는 1961년 10월 이래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으로 봉사해 왔으며,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왔다.

힝클리 장로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1930년대 영국에서 선교사로 봉사함. 미국으로 귀환한 후 본부 주일학교 임원회의 일원, 라디오 홍보와 선교 서적을 관리하는 교회 위원회(현 공보과의 전신)의 서기 역임, 교회 시청각 자료에 관한 분야를 개척함. 라디오 프로그램과 세계 박람회 전시 프로그램 등을 계획하고 지시함, 1951년 선교과를 관리하도록 부름받음, 1958년 십이사도 정원회 보조로 부름받고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 사업에 대한 책임을 맡아 필리핀과 태국에서 선교 사업을 행할 수 있게 함, 그후 남미와 유럽에서도 이와 같은 일을 행한 후 다시 아시아 지역에서 교회 업무를 관리함, 힝클리 장로는 교회에서는 물론 사회 단체와 회사에서도 중책을 맡아 왔음, 교회가 운영하는 여러 기관의 이사를 역임함, 부인과의 사이에 5 자녀를 두고 있으며, 21명의 손자와 손녀가 있음.

힝클리 장로가 대관장단 보좌로 부름받음으로써 생긴 십이사도 정원회의 공석은 닐 에이 맥스웰 장로에 의해 채워졌다. 맥스웰 장로는 1974년에 십이사도 정원회 보조로 부름받았고, 1976년 칠십인 제일 정원이 재조직되었을 때는 이 정원회의 회장단의 일원으로 부름받았다.

맥스웰 장로, 사도로 부름받음



그는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받기 전에 유타 대학의 관리 직책과 교수직을 맡았으며, 부총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감독, 교회 본부 청소년 임원회의 일원, 성인 협회 위원회 위원, 지역 대표 등을 역임했고, 캐나다에서 선교사로 봉사했다. 부인과의 사이에 네 자녀를 두고 있다.

☆ ☆

대관장단은 힝클리 장로와 맥스웰 장로의 임명을 발표하면서 이 조치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관례적으로 대관장단 보좌는 두 명이지만 힝클리 장로는 이 계열의 시대에 두 명의 보좌 이외에 대관장단 보좌로 봉사하게된 열 두 번째의 사람이다.

1960년대 후반에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을 돕는 5명의 보좌가 있었다. 그 당시 휴 비 브라운 부대관장이 제1보좌였고 엔 엘튼 태너 부대관장이 제2보좌였다.

그 당시 조셉 필딩 스미스 장로는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었는데 1965년에 역시 대관장단 보좌로 부름받았다. *

서울 스테이크 조인트 리사이틀

서울 스테이크에서 주최한 3자매의 조인트 리사이틀이 6월 18일 오후 7시 국립극장 소강당에서 열렸다. 서울 스테이크 회원인 조미영 자매와 배정숙 자매는 피아노 독주를 하였고, 황봉엽 자매는 독창을 발표하여 250여명의 청중을 매료시켰다. 이날 선교부장 모임을 주재하기 위하여 한국을 방문한 기꾸썬 장로와 3개 선교부의 선교부장 부처가 참석하여 모임을 더욱 뜻있게 해주었다. 성악을 전공한 황 자매는 현재 서울 서 선교부에서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

창원과 충무 몰몬 전시회



5월 22, 23일 양일간에 걸쳐 창원 기능대학교내에서 그리고 24, 25일에는 충무 시내 남망산 공원에서 몰몬 전시회를 가졌다.

이번 전시회를 위하여 부산 선교부, 부산 스테이크 그리고 마산 와드와 진해 지부 독신 성인 회원들이 선교사들과 합동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창원 기능대학교 학생회 간부로 있는 황금주 형제는 학교측의 지원을 받아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전시회를 관람한 인원을 살펴보면 교내 전시회에는 약 1천여명이 관심을 보였고, 남망산 공원에서는 2천여명의 시민이 관람하였다. *

제주도에 복음 전도 시작

6월 23일, 부산 선교부에서는 제주도에 선교사를 파견하여 제주 지역을 개척하였다. 한국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들어온 지 25년 만에 제주도에 선교사가 상주하며 복음을 전도하게 된 것이다. 여러 차례에 걸쳐 선교사 대회를 제주도에서 개최한 적은 있지만 복음 선교사가 구도자를 찾아 나서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7월 1일자 제주 신문에는 이러한 사실과 함께 교회를 소개하는 기사가 4명의 선교사 사진과 함께 게재되었다. 제주 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선교사들은 제주도민들에게서 친절하고 부드러운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송영국 장로는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 사는 성도들이 제주도에 사는 친척이나 친지들의 주소를 알려 줄 것을 당부하였다. 현재 연락처는 "제주시 제원 아파트 4동 602호"이며, 사서함은 "제주 우체국 사서함 80호"이다. *

여수, 순천 체육 대회

6월 6일, 광주 스테이크의 여수 지부와 순천 지부가 합동 체육 모임을 가졌다. 순천 고등학교에서 가진 이날 모임에 120여명의 회원이 모여 마음껏 실력을 겨루었다. 농구, 축구, 배구, 그리고 피구 등을 통하여 체력을 단련하였고, 회원간의 우정도 두텁게 하였다. 이날 운동 모임의 종합 우승은 여수 지부가 차지하였으며, 금년 10월에는 제 2회 체육대회를 여수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